

만족은 없다 더 완벽하게...광주FC '우승' 위해 달린다

광원FC 경기서 4-2 역전승

울산HD에 승점 앞서 1위

이건희·두현석 "더 잘 하겠다"

만족 없는 광주FC가 '원팀'으로 우승을 위해 달린다.

광주는 지난 1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경기에서 4-2 역전승을 거두면서 연승에 성공했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HD와 승점이 같지만 두 경기에서 가장 많은 6골을 만들면서 순위 제일 높은 곳에 광주 이름이 올라갔다.

앞선 강원전은 전반 1분 만에 실점을 하고도 후반 4골을 몰아치면서 만능 승리라 더 극적이었다. 광주의 힘을 확인할 수 있던 이날 이건희와 두현석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시즌 첫 골을 역전골로 장식한 이건희와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두현석. 그라운드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두 선수지만 경기 끝난 후 두 선수의 이야기는 "있고 싶은 장면들이 있다. 더 잘 하겠다"로 같았다.

이건희는 1-1로 맞선 후반 16분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 정호연의 압박에 강원 이유현이 뒤로 공을 넘겼고 그 틈을 파고든 이건희가 상대 골키퍼를 마주하고 오른발로 공을 때리면서 리드를 가져왔다.

이후 광주가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실점했지만, 후반 28분 나온 가브리엘의 두 번째 골과 후반 52분 최경록의 페널티킥골을 더해 4-2 역전극을 완성했다.

승리의 한 축을 담당한 이건희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의 경기 소감이었다.

이건희는 "찬스를 많이 놓쳤다. 나 때문에 경기가 힘들어진 것 같다. 전반 찬스 때 골을 넣었으면 후반에 조금 더 편하게 경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때문에 팀이 끌려가는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경기를 한 것 같다"고 미안함을 이야기했다.

시즌 첫 골이었지만 득점 장면보다는 골을 넣지 못한 순간이 뇌리에 남았다.

이건희는 경기 끝난 뒤 "골 상황에서 강원이 공을 돌리는 데 뭔가 불안했다. 압박을 갔는데 운이 좋게 공이 왔다. 골키퍼 가랑이를 보고 슈팅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전반에 득점을 놓친 장면은 너무 선명하다. 잡을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이철호 감독은 이번 경기에 대해 "아직 부족하지만 2-3년 같이 하면서 많이 성장했다. 지금 4명의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그중에서 1번이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건희는 "감독님이 믿고 경기 내보내 주시는데 아직 감독님 성에 안 차는 것 같다. 내가 봐도 부족하다. 찬스가 낮을 때 살리면 팀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슈팅 연습만 하려고 한다. 팀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상황에 맞게 슈팅하면서 역할을 하겠다"며 "끌려가는 입장에서 선수들이 급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 같이 하나로 리더가 돼 차분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팀에 감사하다"고 완벽한 플레이를 다짐했다.

두현석은 강원전에서 가장 승리를 바란 선수 중 한 명이다.

광주 진영에서 공을 잡고 있던 두현석은 강원 '무서운 신예' 양민혁에게 공을 뺏기면서 전반 1분 만에 팀의 골대가 뚫리는 걸 지켜봐야 했다.



광주FC의 이번희(가운데)가 지난 1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2라운드 홈경기에서 공을 드리블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두현석은 "공을 다시 꺼내고 싶은 생각이었다. 골 장면을 바로 머리에서 삭제시키고 멘탈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경기하면서 순간 순간 실점 장면이 생각이 났다.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팀에 녹아들어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었다. 승리가 간절했다"고 이야기했다.

두현석에게는 가슴 졸인 경기였지만 팀이 성장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했다.

두현석은 "이런 경기를 하면 많이 성장하게 된다. 팀이 하나로 단단해지는 것 같다. 팀원들한테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코칭스태프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음에 배로 해야 한다. 값어치

려야 한다"며 "우리 팀 진짜 잘하고 있는데 이 자진감이 자만심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기대해도 우리는 계속 긴장하고, 긴장 속에서 훈련하며 더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고 '우승'을 향한 절주를 예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양 루니' 이종호 "그라운드 떠납니다"

12일 소셜 미디어 통해 은퇴 발표

전남서 2부 최초 FA컵 우승 등 건인

13년 동안 저돌적으로 프로축구 K리그 그라운드를 누빈 '광양루니' 이종호(32)가 축구화를 벗었다.

이종호는 12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은퇴를 발표했다.

지난해 K리그2(2부) 성남FC와 계약이 끝난 그는 성남을 비롯한 복수의 구단과 계약 논의를 해왔으나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는 미련 없이 그라운드를 떠나기로 했다.

그는 "행복한 축구선수의 삶을 보냈다. 팬들에

게 기억될 만한 광양루니, 이종호랑이 등 여러 별명으로 사랑을 받았고, 그 또한 선수시절 제 자부심이었다"면서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니 축구선수 시작부터 현재까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적었다.

이어 "축구를 통해 인생을 경험하며 많이 성장했다. 한편으로는 흥분하기도 하고, 아쉬기도 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2011년 전남 드래곤즈에서 프로로 데뷔한 이종호는 2019년 일본 V-바렌 나가사키 임대 시절을 제외하면 13년 동안 전남 K리그에서 뛰었다.

K리그1 218경기 49골 22도움, K리그2 74경기 19골 4도움, 리그컵 3경기 등 K리그 통산 296경기에서 68골 26도움을 기록했다.

팬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인상을 남긴 건 프로 데

뷔 구단이며 7시즌을 뒀 전남 드래곤즈에서였다.

2011~2015년, 그리고 2020~2021년 전남 유니폼을 입고 195경기를 뛰며 48골 15도움을 올렸다.

전남 홈구장인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워낙 저돌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그를 두고 팬들은 '광양루니'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종호는 전남이 2021년 이문, 2부 구단 사상 첫 FA컵(현 코리아컵) 우승에 이바지했다.

전북 현대의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우승, 울산 현대의 2017년 FA컵 우승도 함께하는 등 '우승 북'을 누릴 만큼 누렸다.

이종호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멤버이기도 하다.

A대표팀에서는 2경기 1골의 기록을 남겼다.

/연합뉴스

UCL 본선 36개 팀 출전...리그 스테이지 도입

2024-2025시즌 팀 확대 등 변화

다음 시즌부터 참가 팀이 36개 팀으로 확대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본선에 리그 스테이지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면서 복잡해진 대전 구성을 컴퓨터가 짜게 됐다.

UEFA는 12일(현지시간) 2024-2025시즌 UCL 본선을 리그 스테이지 방식으로 치르고, 복잡해진 대전 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이는 UCL 본선 참가 팀이 현행 32개 팀에서 36개 팀으로 늘고, 이에 따라 대전 방식도 달라지면서 생긴 변화다.

우선 올 시즌까지 UCL에서는 32개 팀이 4개 팀씩 8개 조로 나누어 조별리그를 치렀다.

조 안에서 각 팀은 나머지 세 팀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맞대결을 펼치고, 6경기에서 쌓은 승점을 바탕으로 각 조 1, 2위가 16강에 진출했다.

다음 시즌부터는 36개 팀이 UEFA 클럽 랭킹에 따라 4개의 포트에 배정돼 8라운드제로 구성된 리그 스테이지를 치른다.

승리 시 승점 3, 무승부 시 승점 1, 패배 시 승점 0을 쌓는 방식은 동일한 가운데, 8경기에서 얻은 승점을 바탕으로 한 최종 순위에 따라 상위 8개 팀이 16강 직행 티켓을 얻는다.

9~16위 팀과 17~24위 팀은 홈 앤드 어웨이로 치러지는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어 토너먼트 진출 여부를 가린다. 리그 스테이지 25~36위 팀은 UCL에서 탈락하고, UEFA 유로파리그에도 나설 수 없다.

참가 팀이 늘어나고 진행 방식이 달라지면서 리그 스테이지 대전 구성 방식은 더욱 복잡해졌다.

우선 UCL 챔피언과 UEFA 클럽 랭킹 상위 8개 팀이 포트 1에 속하고, 나머지 참가 팀들이 랭킹 순위대로 포트 2, 포트 3, 포트 4에 편성된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 '빅이어'.

각 팀은 네 차례 홈 경기와 네 차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 데, 각 포트마다 속한 2개 팀씩 총 8개 팀과 8라운드제로 맞붙는 일정이다.

같은 나라 리그 소속 팀끼리는 UCL 리그 스테이지에서 맞대결을 피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나라 리그에서 4개 팀 이상이 UCL에 진출한다면 이들 간 맞대결은 최대한 번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UEFA는 본선 리그 스테이지 대전 구성에 사람이 손으로 공을 뽑는 현행 조 추첨 방식을 유지한다면 약 4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UEFA가 리그 스테이지 대전에 컴퓨터의 힘을 빌리는 이유다.

우선 사람이 손으로 포트 1에 속한 팀 중 먼저 대진할 팀을 뽑는다.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당 팀이 맞붙을 8개 팀과 홈 앤드 어웨이 등 경기 장소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 16강부터는 홈 앤드 어웨이 합산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가리는 방식 자체는 유지되지만, 대전 추첨에서는 테니스 경기에서 시드를 부여하는 것처럼 리그 스테이지 순위에 따라 상위 8개 팀에게 시드를 주는 방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리그 스테이지 1, 2위 팀은 결승에 가서야 맞대결을 펼친다.

2024-2025시즌 UCL은 오는 9월 시작해 내년 1월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파도
- 2관 둔: 파트2, 윙카
- 3관 마담 웹
- 4관 밥 말라: 윈 러브, 윙카
- 5관 파도, 밥 말라: 윈 러브
- 6관 파도, [위드키즈]브래드 피터: 셉템 인 베이커리타운
- 9관 랜드 오브 배드, [위드키즈]웅강한 돌고래 벨루와 바닷속 친구들, 패스트 라이브즈
- 7관 싸이퍼블 메이 디셈버, 윈 앤 온리, 가여운 것들
- 8관 싸이퍼블 파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유우제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